[그때 그 이야기]

장춘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 활동실

“선배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배여있는 건물입니다”

협회 활동실에서 선배님들의 로고를 회억하고 있는 장춘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 현임 회장 박룡익

장춘시 동풍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문광로와 장청로 사이의 록화지에 붉은색 벽돌로 지은 단층 건물이 눈에 띈다. 건물 근처에 다달으면 입구 벽에 걸려있는 ‘로인의 집’(老人之家)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장춘제 1 자동차공장 공장장이였던 경소걸(耿昭杰)이 쓴 친팔 간판으로 우리 조선족 간부와 로동자들의 공헌에 대한 장춘제 1 자동차공장의 긍정과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분회(이하 ‘장춘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 현임 회장 박룡익이 말했다.

1953년 7월에 건립된 ‘공화국의 장자’ 장춘제 1 자동차공장에서는 초창기부터 생산직장과 연구실 그리고 행정부서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년대에 특수한 일터에서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낸 로세대 조선족 건설자들의 헌신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활동실은 우리 선배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배여있는 큰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1995년에 건설하여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박룡익 회장이 말했다.

1987년, 초기 회장인 김영자할머니를 비롯한, 장춘제 1 자동차공장에서 퇴직한 로인들이 마음을 합쳐 장춘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를 설립했다. 협회가 설립되면서 공장에서는 조선족 퇴직로인들을 위해 단독으로 종업원활동중심에 작은 방을 하나 내주어 조선족 로인들이 퇴직후 ‘마지막’ 조직에 가담해 행복한 로년생활을 보내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회에 가입하는 로인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활동을 조직하기에는 공간이 제한을 받게 되였다. 이런 현실에 대비해 1995년 당시 장춘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 제 4 기 회장이였던 박동임을 선두로 협회의 로인들이 새로운 활동실 장만에 착수했다.

박룡익 회장은 “박동임 회장이 자동차공장 9개 부문을 찾아다니면서 6일 만에 승인 도장을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감탄했다. 부지 선택부터 시작해 소방, 전기, 환경 등 부문의 승낙을 짧은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로세대 조선족 선배들이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해왔기에 공장에서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빨리 허락해주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때 선배님들이 각 작업장을 다니면서 10여만원의 협찬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10만원은 정말 큰돈이였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선배님들이 협회 일을 자기 집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박룡익 회장은 선배님들의 로고에 감사를 표했다.

서류상의 절차는 모두 마쳤고 10만원의 협찬까지 받았지만 정식 시공에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70세, 80세 되는 퇴직한 남성 로인들이 아침 일찍 장춘역에 나가 짐을 나르면서 품삯을 받아 조금씩 돈을 모았고 녀성 로인들도 모금에 발벗고 나섰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활동실을 짓는 일이니 힘들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당시 랭면을 팔며 모금에 나섰던 박현자로인이 말했다.

박현자로인의 말에 따르면 퇴직한 녀성분들은 아침 일찍 관련 식자재를 들고 공장 식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공장 식당에 쪽방을 하나 구해서는 거시서 육수를 만들고 면을 불렸다. 준비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밀차에 실어서는 각 작업장을 다니면서 랭면을 팔았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마 둘이서 한조를 묶어 팔았던 것 같습니다. 총 여섯개 조가 있었는데 많이 파는 조는 점심시간에 120그릇씩 팔았습니다. 나중에 통계해보니 총 3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한그릇에 3원씩 했으니 아마도 1만그릇은 팔았을 것입니다.”라고 박현자로인이 말했다.

경비를 절약하고저 일부 로인들은 직접 건축자재를 지원하는가 하면 모든 전기 설치와 같은 손수 할 수 있는 작업은 로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완성했다. 그렇게 로세대 조선족 선배들이 고생으로 지은 활동실이 지금은 장춘제 1 자동차공장에서 퇴직한 조선족 로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되였다.

“여기를 출근합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여기에 옵니다. 문예활동을 위주로 무용, 합창, 시랑송 등과 함께 윷놀이, 공던지기 등 활동을 하고 점심에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아주 즐겁게 하루를 보냅니다.”라고 주혜숙로인이 이야기했다.

주혜숙로인의 말에 따르면 초창기 로인협회는 전부 장춘제 1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던 조선족 로인들로 구성되였지만 지금은 그 가족 성원들까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는 약 100여명의 로인들이 있는데 그중 당원이 약 44%를 차지하며 90세가 넘는 로인이 세분 계신다.

박룡익 회장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며 현재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가장 큰 취지로 하고 있는 장춘제 1 자동차공장조선족로인협회는 부동한 애호, 부동한 경력, 부동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협회 로인들을 위해 어떻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종업원에서 고급 관리일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수요도 다릅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로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로인들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협회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박룡익 회장이 말했다.

/ 정현관 오건 기자

활동실 건설 당시 로인들이 일하는 장면

연변 화물차 운전사들 ‘친정집’ 생겼다

30명 화물차 운전사 공회조직에 집중 가입

5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총공회에서 주관한 주 및 연길시 화물차 운전사 집중 가입 가동식이 연길시에서 개최되였다. 이날 가동식에서 30명 화물차 운전사들이 공회조직에 집중 가입했다.

활동 현장에서 주최측은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온라인 가입 사용 설명서, 상호부축보장 선전책자, ‘사랑선물가방’ 등 물품을 증정하고 운전사들의 신체, 사업 및 생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였으며 온라인 가입 절차를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사들은 잇달아 휴대폰을 들고 관련 사업일군들의 설명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서 쾌속 가입을 실현했다.

료해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가입 후 화물차 운전사들은 온라인에서 야외로동자봉사소 검색, 곤난부축 신청, 취업창업, 법률상담, 종업원 기능 학력 향상 등 편리 봉사를 제공받으며 ‘클라우드’에서 ‘친정집’의 온기를 실감할 수 있다.

최근년간, 연변의 각급 공회조직은 사상문화 전달, 심신건강 전달, 평안보장 전달, 사랑 전달, 일자리 전달, 기능향상 전달 등 ‘6가지 전달’ 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화물차 운전사 등 새로운 업태의 로동자들에게 전방위적인 봉사를 제공하고 화물차 운전사 권익 보장 등 제반 조치를 실제적으로 실행하여 그들의 종업 획득감과 직업 소속감을 강력하게 증강시켰다.

/ 정현관기자

연길 60가구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선정

5월 10일, ‘가장 아름다운 가정’ 표창회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2024년도 연길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랑독하고 60개 가정을 연길시급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선정, 관련 지도자들이 가정 대표들에게 증서를 발급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대표 왕나(王娜)는 “모두가 전통 미덕을 고양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인솔자가 되며 과학적으로 후대를 교육하고 문명가정의 전승자가 되며 량호한 가풍을 잘 수립하고 행복한 가정의 수호자가 될 것”을 호소했다.

이번 표창회의 개최는 2024년 연길시 ‘가정교육 선전의 달’의 서막을 열었다. ‘5.15’ 국제 가정의 날에 즈음하여 연길시부녀련합회는 ‘어머니를 모시고 향촌을 관광하기’, ‘가정물품축제’, ‘작은 홍석류 가풍을 담론하다’ 등 ‘행복한 가정 · 연길’ 계렬 활동을 알심 들여 기획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광범한 가정을 더 잘 인도하고 그에 봉사하며 사회주의 가정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공동으로 고양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동시에 광범한 가정들에서 가정관계를 옳바르게 처리하고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표창회 당일에 2024년 연길시부녀련합회는 ‘그녀’의 성장 계렬 공익수업을 가동했다.

공익수업은 가풍건설, 건강보건, 형상제고, 심리자문 등 내용을 통해 녀성들이 자질과 수양을 제고하고 가족 성원들이 정확한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며 ‘소가정’의 사랑으로 ‘대가정’의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한다.

/ 오건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룡정시, 해란교 개조 보강 공사 시작

5월 10일, 룡정시는 해란교에 대한 개조 보강 공사를 시작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란교는 20세기 90년대에 건설되였다. 현재는 지역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교통운수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최대 적재량이 부단히 초과되면서 교량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여 C급 위험교량으로 평가되고 군중들의 출행에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룡정시는 도시의 도로망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군중들의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란교에 대한 개조 및 보강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의 관계자는 “해란교 개조 및 보강 공사는 폐쇄식으로 진행되며 받침대, 아치 등 시설에 대해 보강하고 기존의 인행도로, 기동차도로, 가로등 등 기반시설들을 새롭게 교체하게 되는데 약 50일후면 통행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관련 일군들이 교면(桥面), 기둥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문 관계자는 페쇄시공의 영향으로 룡연로, 륙도하로, 민생거리 등 구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출행 로선을 계획하고 고봉기를 피하거나 다른 경로를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 실습생 김성보
/ 사진 룡정시융합매체중심

2024년 연변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5월 11일,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 선전주간 가동식이 연길시종합재해감소주제유원에서 있었다.

올해 5월 12일은 우리 나라 제16번째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감소 선전주간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가 안전을 중시하고 누구나 응급구조를 할 줄 알며 기층의 재해방지피난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자’이다.

가동식에서 연길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시장이며 연길시공항구 당사업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왕염휘가 연길시응급관리국에 제1차 전국 자연재해 종합위험 전면조사 선진집단 메달과 영예증서를 발급했다. 의란진 흥안촌에서 태도표시 발언을 하고 주응급관리국 응급구조중심 주임 수의가 선전주간활동의 가동을 선포했다.

관련 부문에서는 재해방지감소 및 재해구조 자문중심을 설치하고 선전자료 배포, 현장 설명, 응급구조 시범 등 방식을 통해 군중들에게 재해방지감소에 관한 지식과 자체 및 상호 구조기술들을 보급했다.

선전주간 기간, 연길시 여러 부문은 활동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재해방지감소, 안전선전, 기능육성을 기업, 농촌, 사회구역, 학교, 가정, 기관, 백화점, 슈퍼마켓에 진입시키고 위챗 등 뉴미디어 플래트홈과 야외 전광판 등 전파 플래트홈을 충분히 리용하여 선전활동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게 된다.

이번 활동은 주응급관리국과 연길시응급관리국에서 주최하고 주재해감소위원회판공실과 연길시재해감소위원회판공실에서 주관했다.

/ 오건기자